

니체·칸트 안에 불교가 있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 봉축세미나서 한국불교 고승사상과 서양철학 비교

니체 칸트 화이트헤드 비트겐슈타인 등과 한국불교 고승들의 사상을 비교분석한 연구가 종합 발표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6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와 서양철학'을 주제로 부처님오신날 봉축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눈이 눈을 볼 수 있는가' 주제발표에서 눈에 대한 비유를 통해 18세기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과 3-4세기 신라 원측 스님의 유식 사상을 비교했다.

한 교수는 "원측 스님과 칸트 모두 마음이 인식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각각의 존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두 사상가는 각 개체가 마음에 의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결론에도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에 있어서는 입장이 같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칸트는 마음이 마음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았다"며 "반성이 아닌 지적 직관의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긴 신 중심의 서양사유의 특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 교수는 "반면 불교는 모든 생명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개최한 봉축 세미나에서는 서양 사상과 한국불교사상의 접합점이 모색됐다.



한자경 교수



김종욱 교수



권서용 교수



박찬국 교수

의 근원이 그 자체에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자 그 지향점"이라며 원측 스님의 입장을 들었다.

이어 발제에서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원장도 "초월적 주관에 의한 인식으로 현상과 경험이 가능하다는 칸트뿐만 아니라

이데아의 실재를 주장하는 플라톤, 창조주의 주제를 신앙하는 기독교 모두는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믿는 기체 용인적 현상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불교에서는 현상 자체가 상호의존 하에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도 전개된다"며 "본체가 현상을 조

울해 지배하지 않고 현상이 본체와 평등하다는 상호 귀속의 장에서 실존주의를 외친 하이데거와 지금 이 자리가 정도란 것을 외친 원측 스님은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서용 부산대 교수는 '의상과 화이트헤드' 발표에서 20세기 영국철학자인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세계관과 의상 스님의 인드라망 세계관의 연관성을 조명했다.

권 교수는 "의상 스님의 부처와 화이트헤드의 신은 초월자 혹은 전지전능한 완전체가 아닌 점에서 접점을 보인다"며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신은 현실적 존재 그 자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박사는 "만해 한용운과 니체" 발표에서 만해 한용운과 니체의 사상을 비교했다.

박 박사는 "만해 스님은 니체의 불교 이해에 더해 불교를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하는 구세주의적 종교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하며 "약자가 지배당하는 책임을 강자보다는 약자 자신에게서 찾는 태도에서 두 사상이나 맥락상 통한다"고 말했다.

박찬국 박사는 "만해 스님은 니체와 유사하게 양육강식의 현실에서 현실적인 힘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이전에는 평등 사상, 자비사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필 교수(대구교대)의 '지눌과 윌리엄 제임스'와 ▷홍창성 교수(미네소타주립대)의 '깨달음의 패러독스와 사적 언어논증'이 각각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사회복지사업 방향 제시

〈불교평론〉 2012 여름호서 '불교와 사회복지' 특집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최근 〈불교평론〉 여름호를 통해 불교사회복지 방향을 제시했다. '불교와 사회복지'를 특집으로 다룬 이번 호에는 △불교사회복지의 이념과 교리적 배경(이광준) △역사로 살펴본 불교사회복지활동(김응철) △일제강점기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의 개괄(이혜숙)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과제(고경환) △불교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방귀희) △불교사회복지의 모범 사례(김호성)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과 불교계의 대응(최경우) △불교 사회복지 활성화 위한 제언(조성희) △현대 불교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향(권경임) 등 논문이 실렸다.

이중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장은 "한국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 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어 수입구조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그러나 외국의 경우 복지서비스 민영화 등으로 정부의 시설 지원 등이 점차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며 불교계의 거시적인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고 실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정부의 지원형태가 변하고 있는 만큼 수입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교계의 시설재정 확충을 위해 동일종단간 자원배분 협의체 구성 및 결연운동, 공동복지기금 조성 등의 운동 전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불교복지의 거시적인 방향을 짚는 논문도 소개됐다. 최경우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과 불교계의 대응"에서 한국불교복지의 대응방향으로 △공생체주의의 △양극화해소 △소수집단의 복지강화 △새 지역복지와 대안가족 복지공생체 강화 △불교 생태복지 개념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불교계가 정부의 복지정책



을 잘 소화할 수 있었던 요인에 보시의 종교라는 특성과 현실 지향적이라는 특성이 있었다"며 "공생체주의를 확립해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불교계가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복지 활성화에는 인적자원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주장도 실렸다.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교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서 "불교계는 1987년 목동청소년회관을 위탁 운영해 온 것을 시작으로 타종교와 비교해 짧은 시간에 그 비중을 높여 왔다"며 "이제는 그 역할이 어떻게 자리 매김 할 것인지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인력수급 장기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불교 정체성 교육이수 제도화 △불교 사회복지 교육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끝으로 "불교사회복지계가 타종교와 차별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기억해 인적자원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관 사부대중 중심으로 바뀌어야”

고영섭 소장, '한국불교사 기술의 몇 가지 문제들' 세미나서 주장

역사를 기록한 이들의 관점에 따라 역사는 다르게 기술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한국불교사 기술에 있어 문제점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사진)는 6월 2일 권상로의 <조선불교약사>(1917),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로부터 우정상의 <한국불교사>(1969)와 김영태의 <한국불교사>(1994) 등 지금까지 간행된 '한국불교사'에 나타난 '사관'과 '주제', '주제'와 '쟁점', '학통'과 '인물' 등 문제점을 집중 검토했다.

이날 고영섭 소장은 "그동안 한국불교사의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시각들을 도의

시한 채 학통(종파)과 인물(고승) 등의 생애와 사상 일변도로 기술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 소장은 "한국불교사 기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요청이 없다보니 사가들 역시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제에 대해 깊이 고뇌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불교사가 대중화되지 못했고 한국사에서 주류사학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고 소장은 이날 "엄설·연기·중도 사관의 확고한 정립과 함께 기술 주제로 출가자 중심에서 사부대중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구 이외에 비구니, 거

사와 부인들의 존재감을 사료를 통해 복원 하자는 시도다.

또 고승의 행적과 사상에 대한 연구로 일관해 온 기존의 연구를 확장시켜 그들의 행적과 사상이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에 대해서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불교사 내부, 특히 승단 중심이던 사관이 한국사의 전 영역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의 보다 유기적인 협동체제가 요청된다"며 "중래 한국불교사 통사류에 대한 검토와 분석 작업 역시 새로운 한국불교통사사의 간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주요한 업무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박물관연구소장이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제'를, 김용태 동국대HK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주제와 쟁점'을,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학통과 인물'을 각각 발표했다.

불교학지원사업회, 소장학자 지원 공모

6월 30일까지 박사논문·번역지원 2개 분야서 접수 받아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제9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한국불교학 연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 불교관련 번역지원 등 2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은 학위취득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학위 논문 수정, 보완 후 응모도 가능하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번역 후 지원 가능하며 선정된 2인에게에는 각 500만원이 지원된다. 불교관련 번역지원은 불교학 관련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을 대상으로, 선정된 2명의 학자에게는 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6월 25~30일로 심사결과는 9월 중 개별 통지된다. (011)97789-3083

노덕현 기자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종 종법 상벌법 제3장 징계, 제8조(체탈도첩·제적), 제4항(파당을 형성하여 승단의 화합을 파한 자)과 제 11항 (기타 중단발전을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한자)에 의거 2012년 5월 31일자로 다음과 같이 징계함을 공고합니다.

◆ 멸빈(4명) ◆

울산 화엄정사 화엄 김광옥 부산 연화사 삼주 이영교
경기 우 리 절 광은 이석옥 충남 해천사 상원 이동규

◆ 제적(12명) ◆

포항 정토사 명종 김인창 서울 법성사 법운 이대연 경주 용암사 용암 최용길 경기 도광선원 도광 박인근
울산 운지암 지운 안성찬 광주 약천사 지현 정홍록 경기 미륵사 일성 강종진 대전 삼 성 암 현담 박문중
대전 해림선원 법광 이재복 제주 한라암 동해 이영식 충남 수광사 보월 전태운 경북 지 장 사 해동 최승용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무원장 경 원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전화 02)991-8175, 8904 전송 02)991-8176